

## 하림, 세무조사 직전 지방국세청장 영입

### '전관예우' 노려 사외이사로 선임 의혹 일어... 재조사 통해 의혹 불식 목소리 커져

하림이 세무조사를 앞두고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출신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재까지 하림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A씨는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등을 맡고 있다.

A씨는 서울청 조사4과3과장 등을 거쳐 법인·개인관련 정계조사와 유통 분야 등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 37년간의 국세청 근무를 마쳤다. 근무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세청에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문제는 하림이 A씨를 영입한 2015년이 특별세무조사가 예정도 있던 해라는 점이다.

하림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맡았다. 조사4국은 한 때 A씨가 근무하기도 했던 부서로, 일각에서는 하림이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노려 사외이사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통해 기업을 향한 국가기관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로 상당수 기업들이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바람막이가 필요한 대기업과 힘이지 않고 역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외이사 양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림은 최근 '편법승계'로 증여세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외부의 시선이 쏠린다.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김흥국 회장의 장남 준영(25)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만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편법승계'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하림 측은 김 회장이 몰아붙여 조사인 한국썬(현 올품)을 증여한 2012년에는 그룹의 자산이 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율은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썬은 준영씨가 승계받을 때만 해도 자산 1,219억원, 부채 488억원의



'청년공감' 도지사와의 대화  
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공감' 도지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가 학생들과

작은 계열사에 불과했다. 특히 하림홀딩스 자본 2.62%(공정가액 18억3,613만원), 제일홀딩스 자본 8.23%(466억7,483만원) 등을 가졌을 뿐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국썬은 증여가 이뤄진 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 자본감소와 주식분할(보통주 508만8,731주 중 408만1,991주 무상 소각)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가며 김 회장과 준영씨 등 오너일가의 지분을 늘렸고, 이 과정을 통해 준영씨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은 "증여 문제는 국세청과 감사당국에서도 2~3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윤리경영을 해왔고 일감 몰아주기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림의 편법승계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재조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발언, 하림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재용 기자

## 안전한 곡선도로 조성 전주 '첫마중길' 주목

### 차량 속도 40km로 제한 사고발생수 직선보다 적어

전주시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를 곡선도로로 만들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줄인 첫마중길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가 도심 차량 속도를 30~50km로 제한하려는 계획에 앞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교통 선진국처럼 도심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별 차량 제한속도는 미국이 40~64km/h, 영국 48km/h, 독일·스웨덴, 스위스 30~50km/h, 프랑스, 덴마크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들도 50km/h이다.

이를 해외국가들은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줄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8~24% 줄어든 경험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등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조정하면 뒤 교통사

고 사망자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시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로 가득했던 백제대로를 기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바꾸는 첫마중길을 조성했다.

차량 속도를 기존 60km에서 40km로 대폭 제한한 첫마중길은 곡선도로를 통해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서곡~추천대교간 도로 역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안전한 곡선도로 선형을 변경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 200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한 21만5822건의 교통사고 중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9만7822건(91.7%)인 반면, 곡선도로의 경우 1만5879건(7.3%)으로 13배나 적었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수원, 고양, 천안, 전주, 창원 등을 돌며 '속도 하향 50-30세미나'를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 '동학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차기 등재 가능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 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 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적인 인식을 높여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2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문 기록물 등 다양한 주제가 생산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혁명군이 추구한 정의, 평등 등의 가치 이외에도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된 계기가 되었던 운동에 대한 기록물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두 차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한 바가 있다.  
2013년에는 정음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2015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전북도, 정음시와 함께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했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도와 정음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인식 제고 및 등재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를 2016년 11월과 지난 5월에 개최하고, 등재신청서를 보완, 지난 5월 12일에 문화재청에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추진위원회 명의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 도서관, 천도교중앙총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총 12개 국가 기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2018년 3월 유네스코에 신청하면 2019년 상반기에 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결정된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업 위원장은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반봉건·반부패·반외세를 동시에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 4.19 기록물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선정 등재신청서류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정식 제출

### 최중심사 거쳐 2019년 등재 결정

등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2년에 1회씩, 국가당 2건의 기록유산을 등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기록유산은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비대체성, 세계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등 등재기준에 따라 기록유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기록유산으로 당시 조선정부,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동학농민군, 일본 공사관 등이 생산한 기록물과 개인의 견

### 매일 INDEX

2면 - 도, 추경 노인일자리 7천개 신청

4면 - 드론축구 공식대회 개최

2015~17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017. 9. 22 (금) - 9. 24 (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와일드한 옛 추억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건강하고 맛있는 축제입니다.  
청정완주의 자연생태가 지닌 야생성을 온 몸으로 느끼고  
로컬푸드1번지 건강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